

# 전남도-광양시 인사교류 갈등 부작용 속출

## 시공무원 노조 반발 불협화음 장기화

## 업무 비협조 확산 공무수행 지장 초래

광양시와 전남도가 인사교류 문제로 얽힌 실마리를 풀지못해 불협화음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부차용도 난무하고 있어 도시사와 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전남도와 광양시의 인사교류 때마다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한다며 시로 전입한 전남도 간부들의 출근지지 운동 및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전남도와 광양시의 인사교류 때마다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한다며 시로 전입한 전남도 간부들의 출근지지 운동 및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시 노조는 전남도와 이성용 시장을 향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전남도와 서기관급 인사교류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등 각종 업무 비협조 문제로 확산,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술 초 전남도 인사에서 광양시 기술직 서기관급 1명이 도로 진출될 예정이었지만 이성용 광양시장이 정년 1년밖에 남지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애초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서기관급 교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시

로 내 보냈던 서기관을 받지 않은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전남도가 광양시 등 인사교류 문제로 비협조적인 시공과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전남도 전입시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갈수록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광양시와 전남도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시 간부들이 도의 비협조와 불공평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광양시 한 간부공무원은 "전남도

직원들이 광양시 간부와는 식사도 안 하려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분위기"라며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이런 방식을 유지할 경우 향후 광양시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현재 전남도와 서기관급 2명, 사무관 7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관급의 경우 광양시 전입 신청자가 적은 반면 전남도 진출 희망 사무관 수는 많아 제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양=박영희기자 pyj4079@

## 여수·순천·광양지역

### 소나무 항공방제 실시

영암산림항공관리소가 오는 21일부터 7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지역 소나무 항공방제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맞아 21일부터 나흘간 여수, 순천, 광양 일원에서 1차 항공방제를 한다.

이어 다음달 11~14일(2차), 7월 2~5일 항공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방제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중형 헬기를 이용해 실시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여수시 울촌면, 소라면, 주상면, 삼일면 300ha, 순천시 해룡면 160ha, 광양시 진상면 일대 40ha다.

김철희 소장은 "항공 방제 당일 해당 지역 주민은 입산을 자제하고 양봉 농가는 방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의 장독대, 우물 뚜껑, 창문 등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성진강기차마을 로즈홀 준공

국성군은 최근 성진강기차마을에서 군민, 관광객, 이장, 각 사회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즈홀 준공식을 가졌다. 로즈홀은 총면적 1335㎡의 규모로 공연용, 세미나실, 점점실 등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차량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다.

(국성군 제공)

## 여수 응천공원 해변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행사

### 9월 30일까지 운영

응천천수공원 해변이 시민들을 위한 해양레포츠포츠 체험장으로 운영된다.

여수시는 20일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간 응천천수공원 해변에서 시

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포츠 무료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상부와 여수시가 주최하고 해양소년단전남동부연맹이 주관하며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후원하는 해양소년단전남동부연맹 홈페이지(http://www.sekj.kr)에서 예약하

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 기간 카약과 딩기요트 무료체험행사를 실시한 결과 2만8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행사를 하게 됐다"며 "해양레포츠포츠 활성화를 도모해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 건설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 순창군, 은퇴 준비 남성 위한 영양교육·힐링푸드 요리 실습

### 28일부터 골드클럽 과정

순창군이 은퇴를 준비하는 40~6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힐링푸드 요리를 실습하는 골드클럽 과정 교육을 오는 28일부터 3박4일간 실시한다.

이번 골드클럽 교육은 올 한해 16개 과정에 1000여명이 참가하는 2013년 순창노후설계교육의 시작 프로그램이다.

순창노후설계교육은 지난 2009년 노인지도자과정을 시작으로 4년간 2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고품격 사회의 해법을 찾는 교육과정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이미 순창만의 노하우가 담긴 노후설계교육이 자리를 잡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영양과 질병과의 관계, 건강장수를 위한 식생활 관리, 식품의기능성과 건강보조식품 등 식생활 전반에 관한 폭넓은 교육뿐만 아니라 '후다닥 빠르고 쉬운 요리', '웰빙 건강밥상', '내 아내를 위한 사랑밥상' 등 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한다.

또 칼질과 식재료 다듬기, 음식 간 하기 등 기초부터 손쉽게 일상에 꼭 필요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면서 실습을 통해 익히게 된다. 순창지역 들에게 고품격 사회의 해법을 찾는 교육과정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 부안군, 농촌 체험관광 매뉴얼 개발

### 체험전 준비·돌발 대처 요령·사후관리 등 3단계

부안군이 농촌 체험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체험의 구성 및 내용을 체계화하고 체험지도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등 농촌체험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20일 부안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을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최종용역(안)에 따르면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나눠 운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단계에 체험농가 및 마을에서 체험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응대요령 등을, 2단계에는 체험객의 단위 및 그룹에 따른 다양한 진행 방법을 예시로 들었고 돌발 상황 대처요령을 담았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일정표 매뉴얼로 체험 종료 후 체험객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단계별 운영 매뉴얼을 농가에 배부해 농촌체험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안정된 체험 매뉴얼을 적용해 체험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31@

## 전북

# 고창 농특산물 '인기몰이'

## 일산 킨텍스 '국제식품산업대전'서 복분자즙 등 30만달러 수출계약

고창군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한국산업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농특산물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공동홍보관에 (주)고창황토배기유통, 선운산농협복분자공사, 해리농협천일염사업소, (유)한국로하스식품 등이 참가해 복분자, 고춧가루, 옥수수, 천일염, 죽염 등 50여 품목을 집중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창복분자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식품기업 투자유치도 권유했다.

홍보관을 찾은 바이어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제품은 (주)고창황토배기유통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와 냉동옥수수였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봉추점담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자재 공급과 품질이 생명인데 세척, 자외선 살균, 이물질 검출기 등 최고 시설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이 같은 인기 속에 싱가플, 흥풍, 중국 등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복분자즙, 복분자식초, 젤리, 캔디 등 농특산물 약 30만 달러 가량의 수출

이성사될 전망이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식품박람회로, 최고급 품질의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고창임을 인식시키고자 주력했다"며 "바이어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판로를 개척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동경식품박람회, 상해식품박람회와 더불어 아시아 3대 식품박람회이며, 전세계 38개국 1211개사와 국내의 5만여 식품업체 관계자가 참가했다.

/고창=음창희기자 cy0370@



국내외 유명 비보이팀 열띤 경연

지난 19일 전북대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 전주비보이그랑프리'에서 국내·외 유명 비보이팀이 열띤 경연을 벌이고 있다.

/연남뉴스

# 116억 받는 구례군

## 내년 일반농산촌개발사업 국비지원 공모 대거 선정

구례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국비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됐다. 국비지원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20일 군에 따르면 2014년 일반농산촌개발사업에 군 현안사업인 산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70억원, 용넷골골연단위종합정비사업 45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원 등 3건, 116억 원 규모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최대 규모다.

2014년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국비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도와 중앙부처에서 각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서면심사 및 평가해 선정하는 공모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이 적은 국비사업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이라며 "2015년도 예비사업으로 잔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대규모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70억원을 커뮤니티센터파크 조성, 웰니스하우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지역경관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3번의 도전 끝에 선정된 45억원 규모의 용넷골골연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권역 내 주민교감센터, 동편제소리포토존, 거닐길, 사계절가꾸기체험장, 수변테마공원, 힐링공원 등이 조성돼 주민 삶의 질 및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 "보성 울포해수욕차탕 휴장합니다"

### 내달 30일까지 시설정비

보성군이 직영하고 있는 울포 해수욕차탕을 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새 단장을 위해 임시 휴장한다.

20일 군은 "해수욕차탕을 찾는 입욕객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깨끗한 시설 정비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시설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울포솔밭해변 인근에 보성다비치 코도 내 해수욕차탕을 이용하면 해수욕차탕을 즐길 수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단신

### 남원 친환경 오이 4년만에 친환경 인증

남원시가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 오이 생산을 위해 토양에 대한 유기질 퇴비와 병저, 미생물 등을 집중투입한 결과 4년 만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오이가 생산됐다.

시는 20일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2곳의 농가 7600㎡이 오이 품목으로

는 최초로 친환경 인증 결실을 맺어 학교급식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연중 출하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면적 12평이 '친환경 오이 작목반'을 구성하는 등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원=백석진기자 bs8787@

### 전주덕진자활센터 자전거 이동수리사업 인기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준홍) 두바퀴로 여는 사업단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 사업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두바퀴로 여는 사업단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11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녹이 슬거나 살이 부러지는 등 고

장 나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서 분해하고 닦고 다시 재조립하고 있다. 이 자전거는 한 달에 1만원의 요금을 받고 회람자에게 대여하고 6개월 이상 대여 시에는 자전거를 무상지급한다. 자전거 이동수리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 송천동, 평화동, 인후동, 삼천동동의 아파트를 돌며 진행되고 있다. /전주=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 전국시조경대회 서울 출신 이종세 1위

(사)대한시조협회 고창지회(지회장 정재선)가 지난 17일부터 2일간 주관한 제11회 고창 전국시조경대회에서 서울 출신 이종세(64)씨가 대상 1위를 차지했다.

고창신협 3층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대상부, 명장부, 특부, 갑부, 을부 등 5개부로 나눠 실력을 겨뤘으며, 그 결과 ▲대상부 최우수 김미숙(54), 우수 조명석(71)씨가 수상했으며 ▲

명장부 안복순(46) ▲특부 서용주(74) ▲갑부 신옥순(73) ▲을부 최한송(77)씨 등이 수상했다.

17일 개최식에는 고창군 김인호 부군수, 송영래 문화원장, 대한시조협회 이경범 회장, 정재선 지회장, 시군 지회장 등 문화 예술계 관계자 및 시조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음창희기자 cy0370@

### 전북도 올해 선도기업 80개 육성키로

전북도가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자동차와 탄소, 농기계, 조선, 풍력 등 전략산업 분야 선도기업의 수를 현재 54개에서 올해 말까지 80

개 업체로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는 이를 모두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북도 4대 성장동력산업 및 뿌리산업분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